

갈매기섬 유해 20여구 찾았다

진실화해위, 58년만에 발굴…민간인 희생 밝혀져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돼 진도 '갈매기섬(갈명도)'에 묻힌 민간인 피해자들의 유해가 58년 만에 밝혀졌다. 또 한국전쟁 당시 나주 다도면 일대에서도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중 다수의 민간인이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희생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국·이하 진실화해위)는 6일 진도 갈매기섬에 대한 유해발굴 작업을 벌인 결과 20여구의 유해를 수습했으며, 이 유해들은 감식 결과 모두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가 밭을 된 장소는 갈매기섬 서쪽 경사로 부근으로 상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흩어진 상

태였으며, 밭을 중앙부에서는 불에 탄 유해들도 발견됐다.

또 유해 주변에서는 사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M1, 갈비 소총과 45구 경 권총 탄피 수십 개와 신발, 협대, 단추 등도 함께 출토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유해의 대부분이 매장 흔적이 없이 자연 퇴적된 점과 사망 직후 유해를 수습한 유족들이 있던 만큼 희생된 사람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진도 갈매기섬 학살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부산으로 퇴각하던 해남경찰이 죽어온동 경력자들로 구성된 반공단체 '국민보도연맹' 관련자 수백 명을 북한군과 내통하지 못하도록 무인도인 갈매기섬으로 끌고 가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진도 수풀항과 갈매기섬 밭굴현장에서 유족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나주 다도면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전남 나주 다도면 일대에서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중 다수의 민간인이 빨치산이나 부역 혐의자로 몰려 희생당한 사건으로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는 133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평화인권 교육을 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연합주기자 ahj@kwangju.co.kr



가을 가뭄에 수질 오염 심화

보성강·영산강 BOD 2배 가량 높아져

남부지방의 가뭄이 길어져 강수량이 크게 부족하면서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섬진강이나 낙동강 등 상류지역들의 강수량이 급감해 주요 지류의 수질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갈수가 지속되고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질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섬진강은 상류 주암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각각 32.6%, 44.7%에 그치면서 주요 지류인 보성강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0.6mg/L에서 1.5mg/L으로 악화됐다. 영산강 중류지역인 영산포도 지난해(1.7mg/L)에 비해 2배 가량 수질이 악화된 3.0mg/L를 기록했다.

낙동강 수계 강수량은 844.2mm로 최근 10년간 동기대비 61.6%에 불과해 주요 상류지역인 안동댐(74.1%), 임하댐(35.1%), 남강댐(41.3%)의 방류량도 줄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당분간 갈수가 지속되고, 예년에 비해 비가 적을 것으로 보여 오염원이 집중된 지점으로부터 점차 수질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갈수가 수질관리를 포함한 수질오염조사·예방책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시지했다.

환경부는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점검 강화 및 지자체·환경청·검찰의 무단방류 행위 합동단속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주기자 kps@kwangju.co.kr

병원 2%·약국 2.2%

내년 진료 수가 인상

내년도 진료 수가 병원은 2%, 약국은 2.2% 오른다.

건보공단은 7개 보건의료계 단체와 유형별 협상을 벌인 끝에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기관 등 6개 단체와의 수가계약에 성공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은 결렬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수가는 병원 2.0%, 보건기관 2.6%, 치과 3.5%, 한방 3.7%, 약국 2.2%, 조산원 9.3% 인상되지만 의원의 진료 수가는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가란 각 의료행위에 매겨진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7개 보건의료계 단체와 개별 협상을 벌여 결정한다. /연합뉴스

병원 2%·약국 2.2%

내년 진료 수가 인상

긴급 대피훈련

광주도시철도공사는 6일 광주시 동구 용산동 차량기지에서 '2008 비상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돌발적인 차량 고장 상황을 설정해 치러진 이날 훈련에서 직원들이 승객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과학고 37명 KAIST 합격

최근 10년 내 최다

광주과학고가 37명의 2009학년도 KAIST 신입생을 배출했다. 이는 2007년도 22명, 2008년 28명보다 훨씬 늘어난데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수이다.

현재 2학년을 포함한 대학 진학 대상자가 93명(2학년 79명·3학년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40% 정도가 KAIST에 진학한 것이다.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2차 모집 결과까지 집계되면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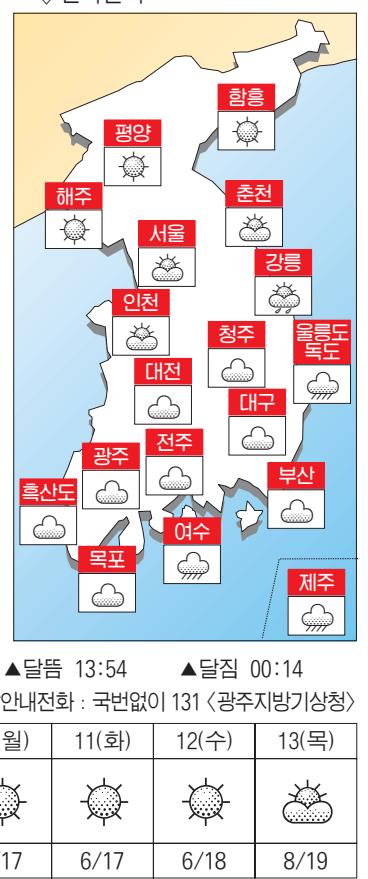
광주과학고 관계자는 "매년 전국의 과학교정원이 늘고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KAIST 지원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까지 셤에 넣는다면 올해 광주과학고의 KAIST 진학 실적은 꽤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광주과학고는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등의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R&E(대학연계 연구), 대학과목을 먼저 이수하는 APC(대학과목선수제) 등이 KAIST 진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겨울의 문턱 '立冬'

남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었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린 후 점차 개겠다.

11월 7일
(음 10월 10일)
▶전국날씨



수능일 구름 많고 입시한파 없다

2009학년도 대학수능학력시험일인 13일 전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도 13~19도까지 상승해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은 6일 "수능일인 다음 주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3~12도의 차분을 보이면서 영하권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수험생엔 검정 참깨 최고" 식량과학원 권장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1주일여 앞둔 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가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검정 참깨를 권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에 따르면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건강관리 못지않게 음식물 섭취가 중요

한 시기에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소화가 잘되는데다 머리를 좋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검정 참깨를 먹을 것을 권했다. 식량과학원은 '신농본초경'에서는 검정 참깨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동안 편입합격생 12만 천여명을 배출한 "김영선생대학편입"

대학편입일 최종마무리반 모집 개강 ▶ 12월 1일 첫진도

www.kimyoung.co.kr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2009년 편입학 성 공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 앞선시작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www.kimyoung.co.kr

최고수익률/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신속한명도/정확한권리분석/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을 확보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점포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월동장 010-2648-2550

주택/재개발 손아이 011-9811-2817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

부동산 대표이사 010-2611-5598

부동산 대표이사 010-9660-3225

부동산 대표이사 010-2308-2308